

2020. 11. 23

백신 기대 불구 중국 역내 디폴트, 미중갈등 등으로 가산금리 혼조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- [유통시장]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낙관적인 임상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와 중국 역내채권 디폴트, 美 행정부의 중국군 통제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명령 등에 쏠 크레딧물 가산금리 혼조, CDS는 상승

- 쏠 크레딧물 가산금리 : IG상승, HY하락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+2.0bp, HY -3.9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는 보합(-1bp~+3bp)
-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모더나도 긍정적인 3상 중간평가 결과(94.5% 예방효과)를 발표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초반 위험선호 투자심리 개선. 그러나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8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주초반 이후 위험자산 시장은 다시 조정국면에 돌입
- 쏠 크레딧물은 중국내 역내채권 디폴트(16일 반도체기업인 청화유니, 20일 환천그룹)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추가 디폴트 우려와 美 행정부의 중국군 통제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명령(내년 1월 11일 발동)등에 중국채권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확대되며 가산금리는 혼조세

- 쏠 CDS 상승 : 일본 +0.1bp, 중국 +1.4bp, 한국 +0.3bp, 말련 +2.3bp, 태국 +0.6bp, 베트남 +3.5bp, 인니 +3.7bp, 필리핀 +2.4bp

- [발행시장] 11월 셋째주 쏠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\$60억 발행 (11월 둘째주 \$86억 발행)

- 11월 셋째주는 중국 역내 채권 디폴트 및 미중갈등 영향으로 전주대비 감소한 약 60억불 발행. 중국 재정부의 40억 유로규모의 유로채 발행이 전체 발행물량의 70%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대다수 발행사들이 미 대선 이전에 미리 발행을 끝마침에 따라 연말까지 발행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(JP Morgan)

<표 1> 주요 쏠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발행기관	종류	신용등급	발행일	만기	통화	발행액	발행금리	주문액	비고
China Government	RegS	A1/A+/A+	20/11/18	30/11/25	EUR	20	MS+55bp	-	-

<표 2>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19년말	11/13일	11/20일
외평채'29	10	6/19/2029	47	43	42
산업은행'24	5	10/1/2024	51	45	44
국민은행AT1	5	7/2/2024(1 st call)	206	252	255
한국서부발전'22	3	7/22/2022	59	48	46
한국전력공사'24	5	6/24/2024	68	57	59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<표 3> 쏠 주요국 CDS

	'19년말	11/13일	11/20일
한국	22	22	23
일본	20	16	16
중국	31	32	33
태국	23	38	38
인니	62	76	79

- [미국 IG 발행시장] 11월 셋째주 IG발행시장은 지난주 대비 증가한 총 \$470억 발행(전주 \$413억)

- 11월 셋째주 발행시장은 투자자들이 올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임에 따라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며, 미국 추수감사절(11월 26일)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발행시장이 한산할 것으로 전망(JP Morgan)